



순창경찰, 의무경찰 마지막 전역식 가져

순창경찰서(서장 김종신)는 지난 10일 18개월간 국민의 안전과 생명자립이 역할을 해준 제1119기 의무경찰대원 2명의 전역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역하는 수경 박천규, 김경태는 의무경찰 제1119기로 112 타격대 업무와 경찰서 시설경비, 대간협진수행업무 및 실종자 수색과 수해 복구지역 지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의무경찰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치안 유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의무경찰은 2018년부터 인원을 매년 20% 감축하여 오는 2023년 완전폐지할 계획이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소방서, 65세 이상 어르신 맞춤형 소방교육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14일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 소방안전교육과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안전교육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변화재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치매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이 병행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감염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추진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어르신들에게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의 중요성과 사용법, 주택화재 경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치매예방교육과 어르신 맞춤 건강체조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기자

남원소방서, 목공예공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1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지역 특화시설인 목공예 공장 7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했다.

목공예공장은 특성상 디랑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화재 취약성과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고, 공장 영세화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 위험성 항상 상존하고 있다.

실제 남원시 최근 5년간 목공예공장 화재가 수시면 00건에 와선다면 000목공예공장에 전기로 인한 가연물 착화 화재가 발생해 3천여명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국제 SCI 학술지 논문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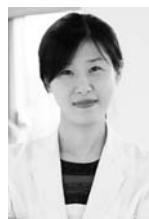
원광대병원 한아름 교수, 국민건강영양조사 활용한 단독 저술 논문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 가정의학과 한아름 교수의 단독 저술 논문인 '한국인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식사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질과의 연관성' 논문이 국제 SCI 학술지 'Nutrients' (IF: 4.5)에 게재되었다.

한국인의 빅데이터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는 의식의 빈도, 식사 습관, 스트레스 인자로 EuroQoL-5D를 이용한 삶의 질 평가를 조사하였고 비알코올성 지방간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의식의 빈도나 식사 습관과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 인자를 통해 삶의 질을 평가하는 EuroQoL-5D 점수와는 깊은 연관성을 보여 이 점수가 1 감소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성이 3.3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발생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현재 만성 간질환의 75%를 차지하고 비만 다양한 대사 질환 심지어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알코올 섭취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인슐린 저항성과 간의 지방간 흡수 및 대사성 염증 메커니즘에 의해 막기 되는 질환이다.

비만, 서구식 생활 습관, 운동 부족과 건강에 해로운 식사습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과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 외국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과당의 과도한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 아침식사를 거르고 아식을 먹는 식습관도 마찬가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의 위험 인자이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활습관보다는 스트레스와 삶의 질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와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 관리의 필요성이 큰 화두를 던졌다.

/김재훈 기자



남원경찰, 범죄취약가구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범죄노출 우려가 높은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 방충망을 무상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침입 범죄를 예방하고자 공동전을 개최해 사업 신청 및 심사과정을 진행하여 남원경찰서가 선정되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저소득층 및 1인 여성가구, 범죄피해자 가구에 침입방지 성능이 우수한 특수 방범방충망 등을 설치,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거주지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하였으며, 사업진행 후 주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 어린이 신문 기자단 인터뷰 시간 가져

순창경찰서(서장 김종신)에 지난 10일 순창어린이신문 기자단이 방문해 김종신 서장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어린이신문 기자단은 순창미을학교협동조합이 위탁운영을 맡고 순창교육지원청이 사업을 주최하고 있으며, 순창군청이 후원하고 있다.

초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취재하여 신문을 발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순창경찰서를 찾은 어린이 신문 기자단은 적성초등학교 4학년 1명, 6학년 1명 총 2명이 인솔교사와 함께 순창경찰서를 방문했다.

어린이 기자단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왔으며, 김종신 서장에게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내용은 무게있고 현실성이 있는 질문으로 '경찰임무 동기기 무엇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범죄자는?, 승진했을 때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순창에 범죄 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등 세밀한 질문으로, 경찰업무와 지역 친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 공덕면 직원, 땅기 적출 일손돕기 나서

김제시 공덕면(면장 천민영)에서는 지난 11일 공덕면 저산리 비닐하우스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방문하여 일손돕기 봉사를 진행했다.

지속되는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업의 첨단 기계화와 현대화 속에서도 노동력 부족이 코로나까지 겹쳐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덕면에서는 보름 전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 애로를 겪고 있는 땅기 시설원에 농가주 돋기에도 나섰다.

천민영 면장을 비롯한 직원 9명은 뜨거워진 날씨에도 땅기 끊임없이 하우스 안에서 수확이 지나 시든 땅기 모종을 배지에서 제거하는 적출 작업을 실시하여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 일에 앞장섰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 계남면지사보협의체, 취약계층 반찬나눔 사업 추진

장수군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응수, 조해순)는 관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반찬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반찬나눔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지역특화사업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독거노인, 장애인, 청장년 독거기구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전달하며 인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조해순 민간위원장은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응수 공공위원장은 "바쁜 농번기에도 봉사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협의체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기자



김제 성덕면, 일손 부족농가 도움 제공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최근 본격 영농철을 맞이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덕면 남포리 농가를 찾아 농가의 지도하에 벼 종자 파종 작업 등 농촌 일손 돋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 돋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공급 부족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단기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실정에 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농가주 K씨는 벼 종자 파종작업 시 힘을 많이 쓰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던 중에 일손 돋기 지원을 받게 되어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